

# 온실가스 배출감축 구체방안 논의

2009년 기후변화협정 초점 ... 개도국 친환경·저탄소 경제 중점

미국의 주도 아래 전세계 16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1월30일 하와이에서 개막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1월31일까지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브라질, 인디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주요국 대표들과 함께 UN, 유럽연합(EU),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이보 데 보어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모든 노력은 2009년 체결 예정인 기후변화협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참가국들은 책임감을 갖고 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조치를 보장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친환경 및 저탄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소위 기후변화관련 마셜플랜”이라고 설명했다.

보어는 회의 개막에 앞서 지구온난화에 아무 책임이 없는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매우 취약한 지역사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협의의 진전을 촉구한 바 있다.

회의에서 UN은 2007년 발리 회의를 통해 2012년 이후를 대비한 국제기후협약을 2009년까지 체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치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회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2007년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 열린 뒤 다시 마련된 자리이다.

부시 행정부는 교도의정서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문제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을 거부해왔으나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01>